

## 사무엘기상·하의 중심 사상과 사무엘기상·하에 제시된 신성한 삼일성

5/9 월요일

### 아침의 누림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골 1:12-13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 3:6-9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골 3:17

17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

사무엘기상·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려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의 역사를 통하여 예시되고, 부정적인 면에서는 엘리와 사울의 역사를 통해 예시된다. 그러한 동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에 대한 개인적인 누림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사무엘기 상·하는 여호수아기, 사사기, 룻기의 연속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에 대한 누림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들이 누린 좋은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왕들로서 다스렸다. 이것은 신약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의 예표로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으로 귀결된다(롬 5:21).(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 장, 1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인삼각 ... 경주에서 경주자들은 각각 한쪽 다리를 그의 동반자의 한쪽

다리와 묶고서 짝을 이루어 달려야 한다. 동반자들이 함께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동역해야 하고 단독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그림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고, 한 생명에 의해 그분과 함께 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무엘의 출생은 한나가 하나님과 동역한 것과 관련이 있다. 낡은 제사장 직분은 진부해지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갖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출생을 위하여 배후에서 일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한 면에서는 한나의 태를 단으셨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한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삼상 1:5-7). 이로 말미암아 한나는 자신에게 사내아이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11 절)라고 서원하며 말했다. 이러한 기도는 한나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나가 기꺼이 하나님과 동역하고자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한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녀의 태를 여셨고,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20 절). 그 후 한나는 자신의 서원에 따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엘리의 보호 아래 두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과 아주 많이 동역한 사람이었음을 본다. 한나의 사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얻으시기를 기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에서 ... 우리는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 가운데서 그의 일생과 모든 것을 중국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드리겠다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을 본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귀히 여겨졌으며, 그분께 매우 많이 사용된 매우 영적인 선교회인 중국 내지 선교회의 결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내가 자신을 허드슨 테일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체험도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내가 십 대 후반에 학업에 힘쓰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고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직후 길을 걷고 있었을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져다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비록 내가 그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상 나는 주님께 서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서원을 그분은 귀하게 여기셨다.

오늘날 많은 대륙과 나라들이 주님의 회복을 향해 열려 있다. 한나와 같이 서원할 몇몇 사람들이 필요하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서원을 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제 자신을 당신께 빌려 드립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이 그분께 서원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실 것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 장, 14-1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 장

**5/10 화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0:25**

25 곧이어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국의 법도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돌려보내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 6:10**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마 7:21**

21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삿 21:25**

25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행 13:22-23**

22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삼하 23:1-3**

1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이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선포이며 높은 곳에 세워진 사람의 선포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이이며 이스라엘에서 찬송시를 아름답게 부르는 이이다.

2 여호와와 영계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이는

----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는 제사장의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시대를 바꾸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올 수는 없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분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고, 그럴 때 그분의 영광이 표현될 수 있다. 마태복음 6 장 13 절에 있는 기도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먼저 왕국이 있고 권위가 행사되며, 그런 다음에 영광의 표현이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54 년, 4 권, 레위기부터 느헤미야까지에 있는 계시- 생명의 노선을 봄, 영문판, 9 장, 52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그분의 집, 곧 그분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삼일성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좋은 땅 안으로 들어갔지만, 좋은 땅은 원수들로 가득했다. 사사기가 삼일성을 계시하는 이유는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데 삼일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단지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목적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나 왕국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21:25)고 결론을 맺고 있다.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왕국을 이끌어 온 사람이었다. 사무엘기상·하는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한 표현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왕국을 얻으셔야 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이 표현되시는 한 영역이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마 6:9-10)라고 시작하셨다. 신약은 왕국 복음인 마태복음으로 시작한다. 마태복음 3 장 2 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저택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신약은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비교 마 4:23, 9:35, 24:14).

하나님은 하나의 표현을 가지기 위해 왕국이 필요하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이끌려 나와 광야를 통과했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건축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좋은 땅에 들어갔고, 각 지파에게 좋은 땅의 한 몫이 할당

되었다. 사사기에서 원수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패배당했다. 그런데도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없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셨다. 사무엘기상·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시기 위해 첫 번째로 사용하신 사람은 또 다른 여성, 곧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다. 그녀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은 왕국과 함께 왕을 이끌어 왔다. ... 다윗이 지위를 얻게 되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였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한 여인의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 얻어진 사람이었다.

사사기에 나오는 비참한 상황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긴급하고도 절실히 필요했다. ... 사무엘은 나실인이자 제사장이자 신언자이자 사사였다. 이러한 사중 신분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왕을 이끌어 오고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을 갖게 되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일으켜지고 그가 받은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신성한 삼일성이 필요했다. 오직 삼일성만이 이것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무엘기상·하에는 신성한 삼일성에 관한 상세하고도 세밀한 계시가 있다. 사사기에서 일어난 일은 다소 개략적이지만, 사무엘기에서는 신성한 삼일성에 대한 적용이 매우 섬세하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3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0장, 381-383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3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 3, 8-10장

## 5/11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삼상 8:5-7

5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지금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신데 아드님들은 어르신의 길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

6 그러나 사무엘은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일 때문에 언짢아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이 너에게 한 모든 말대로 하여라. 그들은 너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여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

#### 삼상 2:35

35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안전한 집을 지어 줄 것이고, 그는 줄곧 나의 기름부음 받은 이 앞에서 행할 것이다.

#### 눅 1:31-33

31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32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되실 것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분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니,

33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이 무궁할 것입니다.”

#### 히 1:8

8 아들에 관해서는 “오, 하나님! 왕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왕의 왕국의 지휘봉은 올곧은 지휘봉입니다.

#### 계 12:10-11

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표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국을 주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셨고, 다윗을 통하여 왕국을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단 한 사람을 얻는 것도, 심지어 그분을 추구하는 무리의 사람을 얻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왕국을 얻으시는 것이었다. 성경의 계시의 완결은 왕국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라고 말한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있을 것이다.

비록 사무엘이 결국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셨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사람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왕국을 향한 갈망이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이끌어 오기를 원하셨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7장, 57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오르면, 항상 이러한 문제가 있다. 곧 그가 자신과 필적하거나 또는 자신보다 위에 있을 누군가가 등장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만일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여러분과 필적하거나 여러분보다 위에 있을 누군가에게 어떤 입지를 주겠는가? 사무엘은 순수하고 단순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맹세에 따라 나실인이 되었고,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민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이러한 마음은 사무엘 안에 그대로 복사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안에 복사되었으므로, 사무엘은 자신의 유익이나 이득을 주의하지 않았다. 결국 사무엘은 자신이 묻힌 무덤 외에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지만, 사울과는 반대로 그에게는 그들을 위해 왕국을 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으며,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했다(삼상 8:1-3).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그의 아들들과 관련된 그 어떤 일로 인해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백성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기 원했기 때문에 언짢아했다(4-7 절). 사무엘에게는 그의 후손을 위해 왕국을 세울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관심은 그의 자녀들에게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왕국을 가져오기가 쉬우셨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먼저는 사울에게, 그 다음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앞으로 보겠지만, 사울에 관한 역사를 고찰할 때, 사울은 단지 군주국을 가졌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다윗이 다스리던 때, 곧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때에 처음 도래하였다. 마태복음 21 장 43 절에서 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구약에서 시작되었음을 가리킨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것은 일종의 군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다.

사무엘이 엘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매우 섬세하게 가르치셨고, 그를 그분의 합당한 제사장으로 건축하시고 세우셨다. 그러한 제사장으로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판결하는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신언하는 신언자가 되었으며, 왕의 직분을 이끌어 오는 사람이 되었다. 이 왕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졌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곧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왕국 곧 교회가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6 장 18 절과 19 절에 따르면, 교회와 왕국은 동일하다. 오늘날 왕국은 교회이며, 교회 안에는 그 내재적인 본질인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사무엘상·하 라이프스타디, 7 장, 57-58, 61 쪽, 3 장, 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3, 6-7, 9 장

## 5/12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삼상 1:11, 15

11 한나가 서원하며 말하였다. “오, 만군의 여호와님! 만일 여호와께서 참으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어 이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여종에게 사내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의 일생을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15 그러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 나는 영이 짓눌린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 앞에 내 혼을 쏟아 내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

#### 민 6:2-3, 8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3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8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 빌 2:12-13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 엢 1:9-11

9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10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타락한 이스라엘의 혼돈된 상태에서도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정하신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렀다. ...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갈망을 성취하는 것과 관계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대다수가 하나님의 목적을 관심하지 않는다. 내가 워치만 니 형제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형제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는 사람 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본을 따르고 싶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노선 안에 남아 있다. ... 하나님의 목적은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몸을 얻음으로써 그분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완전한 표현을 얻는 것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 장, 18-19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기상은 엘가나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로 시작되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1:1-2).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는 반면, 브닌나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이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엘가나는 해마다 그의 가족을 데리고, 그 당시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물을 드렸다(삼상 1:3). ...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녀는 필사적이고 헌신되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10-12, 15 절). 한나는 사내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했고, 그 아이를 그녀 자신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 주님께 드리고자 했다. 한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아들, 곧 주님을 위해 절대적인 아들을 주시기를 기도했다. 주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한 아들이 태어났다(20 절).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또는 ‘하나님께 구하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요청을 들으실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겼다(삼상 1:24, 2:11, 18).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성전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삼상 3:4-14). 사무엘은 주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처럼(눅 2:42) 아직 소년이었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신언자이자 사사가 되었다(삼상 3:20, 7:6). 그러나 사무엘이 제사장과 신언자와 사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왕이 있는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차례 사무엘을 보내시어 어떤 사람들 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먼저,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했다(삼상 9:16, 10:1). 후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이 되게 했다(삼상 16:1, 13).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이끌려 왔다. 이 역사 속에 있는 중점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워치만 니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0 장, 383-384 쪽)

이 부부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동역하고 있었다. ... 그들은 움직이고 계시는 분, 신성하게 움직이는 유일하신 분, 배후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분에 의해 움직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 아래 한나는 영 안에 여호와 앞에 쏟아 낼 부담이 있었고,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혼 안에 억눌림이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이었다.

하나님께서 한나 안에서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평안할 수 없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녀를 계속 움직

이시고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하심으로써 그녀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셨다. ... 한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움직임과 동역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고자 하실 것임을 완전히 확신한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고 동기를 부여하실 것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 장, 19-2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6 장

5/13 금요일

### 아침의 누림

삼상 1:24, 27-28

24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황소 세 마리에다 고운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도 함께 가지고 갔다. 비록 아이가 어렸지만 한나는 실로에 있는 여호와와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

27 내가 기도한 것은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한 그 간구를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28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빌려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일생 동안 여호와께 빌려드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

삼상 2:18

18 그런 가운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삼상 16:7, 12b-13

7 그러나 여호와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와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12b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사무엘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께서 그날부터 다윗 위에 세차게 내려오셨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삼하 22:1-3, 47

1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내신 날, 다윗은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2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와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를 건져 내시는 분,

3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산성, 나의 피난처시니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다네.

47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드높여라.

---

사무엘기상 1 장에서 희생 제물들은 모든 제물들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호와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시고,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신 그리스도이다. 더욱이 황소와 고운 가루와 포도주는 우리가 체험하여 하나님의 집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부분은 주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인 하나님의 집과, 우리가 하나님의 체현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인 제물들 곧 구속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이 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체현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본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0 장, 38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사무엘기상 19 장에서 우리는 그 영을 본다. “사울은 다윗을 붙잡으려고 전달자들을 보내었다. 그들은 한 무리의 신언자가 신언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서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의 전달자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러자 그들도 신언하였다.”(20 절) 23 절은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도 내려오셨다. 그러자 사울도 … 걸어가면서 줄곧 신언하였다.”라고 말한다. 사울은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다. 사울의 활동을 중지시킨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신언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은 군대를 지휘하고 있지 않았고, 신언하는 것을 인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달하시는, 삼일성의 셋째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하신 것이었다. 사무엘기하 22 장 1 절부터 3 절까지는 “다윗은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 ‘여호와와 … 나의 반석…’”이라고 말한다. 47 절은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드높여라.”라고 말한다. 사무엘기하 23 장 1 절부터 3 절까지는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 ‘… 여호와와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 그분의 말씀이 내 혀 위에 있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한다. 이 절들에서 반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근거이신 그리스도이다. 여호와와 영은 삼일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절들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삼일 하나님을 가리킨다. 사무엘기하 24 장 25 절은 “그곳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라고 말한다. 번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화목을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체현과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도록 사무엘과 다윗을 산출하는 것에 완전히 연관되어 계셨다. …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 말하지만, 대부분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무엘은 하늘에 속한 왕국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다윗을 이끌어 왔다. 주님께서 돌아오시리라는 예언은 오직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한나는 사무엘을 이끌어 왔고, 사무엘은 다윗을 이끌어 왔다. 사무엘기상 16 장 1 절부터 3 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제 너의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의 아들들 중 한 사람을 나를 위한 왕으로 선택하였다.’ … ‘너는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 이새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러 나아오라고 하여라. …’”라고 말한다. 13 절은 “사무엘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형제들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와 영께서 그날부터 다윗 위에 세차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한다. … 이 절들에서 우리는 여호와이신 삼일 하나님과 여호와와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영을 본다.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예표한다. 희생 제물로 드려진 암소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한 것에는 신성한 삼일성이 연관되어 있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0 장, 386-3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장로 훈련, 2 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10 장

5/14 토요일

아침의 누림

마 6:33

33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

#### 계 1:4-7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6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그분 자신의 하나님,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7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 마 6:9-13

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 빚을 용서하여 주시며,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우리의 현재 상황과 하나님의 오늘날의 필요는 원칙상 사무엘 시대의 상황과 필요와 동일하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실인이자 제사장이자 신언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같은 이들이 필요하시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어 왕도 없고 왕국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종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상황을 종결하고 왕과 왕국을 이끌어 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필요하시다. 왕국의 성취는 왕국의 도래이다. 이 왕국은 주 예수님께서 이끌어 오실 것이지만, 오늘날 사무엘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해 신성한 삼일성과 동역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아직 이곳에 계시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사사 시대처럼 혼돈된 상황에 있다. 우리는 마지막 사사가 되기를 열망해야 한다. 특히 자매들은 한나처럼 되기를 열망해야 하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과 함께 오시도록 혼돈된 시대를 종결지을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산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 10 장, 384-38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이러한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신성한 삼일성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깨달아야 한다. 한나가 그러한 영향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분명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막과 제물들이 필요했다. 성막과 제물들은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모든 제물들의 실재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자 모든 제물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또한 회막의 성취 곧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가 필요하다. 한나는 그녀의 영향력 있는 기도를 자신의 집에서 드리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생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체현과 그분의 완전한 구원이다. 그러한 교회생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유력한 기도를 함으로써 왕국을 이끌어 올 수 있다.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하는 것이다.

사무엘기상·하는 왕을 이끌어 오고 왕국을 세우는 것이, 신성한 삼일성이 그분의 백성과 연관되는 것에 달려 있음을 계시한다. 오늘날 삼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연관되신다.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체현과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영광과 함께,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 우리를 유용한 사람들로 조성하고 계신다.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이 연관되는 일, 곧 신성한 삼일성의 일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의미에 관한 우리의 관념이 변혁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우리의 천연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념들은 우리와 완전히 연관되어 계신 삼일 하나님에 대한 이상으로 대치되어야 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 10 장, 385, 389 쪽)

우리는 반드시 신성한 삼일성과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신성한 삼일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이시다. 신성한 삼일성 가운데에는 전혀 다툼이 없다.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기를 기뻐하시고, 아들은 매우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시며, 그영은 기꺼이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삼일성’은 이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구원자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신 신성한 삼일성이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사람의 삼일성’은 내주하시는 신성한 삼일성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구원자와 동역해야 한다. 결국 영광과 혼과 몸, 곧 우리의 전 존재는 신성한 삼일성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주하시는 삼일성과 이렇게 동역하는 것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6 장, 68-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 장

5/15 주일

아침의 누림

계 5:5-10

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7 그 어린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8 어린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2:12,14, 16-17

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겹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셋별이다.”

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941. 하나님의 권세의 영역인

1 하나님의 권위의 영역인 왕국은 그 질서 건축하는 주권의 다스림 주 하나님의 왕권 행사되는 왕국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2 왕국의 중심 보좌 하나님 좌정해 그 마음 갈망 따라 모든 것 다스려 왕이신 하나님이 머리와 주 되니 다 자기 위치에서 제 궤도 지키네.

3 하나님 다스려서 그분 뜻 행사해 그 권위 아래 주 뜻 이루어가시네 보좌로부터 주의 생명 강 흘러가 하나님 왕국 안에 축복 넘치도다.

4 그 통치 아래에서 축복을 받도다 그 주권 거스림이 죄악의 뿌리니 늘 주의 보좌 엮는 사탄 물리치고 하나님 권위 아래 살기만 원하네.

5 하나님 왕국 안에 주 확대되겠네 주 생명의 다스림 하나님 자랑 돼 주 통치 실시할 때 다 축복 받으리 주 하나님의 영광 다 나타나겠네.

6 때 차면 주 안에서 만물이 하나 돼 주 왕권 인정하고 그 통치 받으리 생명의 통치 먼저 교회가 맛볼 때 만물도 그 누림을 고대하고 원해.

악보 / 음악 (한 745 / 영 941)

<http://khymnal.org>

2022. 5. 9 ~ 2022. 5. 12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3, 6-7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윌트니스 리 전집, 1983 년, 3 권, 거룩한 말씀에 계시된 신성한 삼일성, 1, 3, 6 장

신성한삼일성안에서신성한삼일성과함께삶, 1 장